

# 독일의 종교개혁과 도시공동체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Reformation and Commune in the  
Church History of Deutschland

—Focusing on the Recent Issues—)

\*홍 치 모

## 머리말

1962년 독일의 종교개혁사를 연구하는 소장학자 중에서 Bernd Moeller는 종래의 인물사적 혹은 신학적 입장에서 추구해 오던 방법과 범주에서 탈피하여 종교개혁운동의 주체를 도시공동체(Commune)로 보려는 첫 시도를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제국 도시와 종교개혁』(Reichsstadt und Reformation)을 저서로 발표하였다.<sup>1)</sup>

Moeller 교수의 저서가 간행된 이후 약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필자는 제4회 루터연구자 대회가 1971년 8월 미국 St.

---

\* 총신대학교, 교수. 교회사

1) Bernd Moeller, Reichsstadt und Reformation (Gutersloher Verlagshaus, 1962).

Louise시에 있는 컨코디아 신학대학(Concordia Theological Seminary)에서 개최되었을 때 참가하여 종교개혁과 도시를 주제로 하는 분과별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귀국하여 종교개혁 연구의 새로운 동향을 지체없이 소개하여야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1982년에야 겨우 Moeller 교수의 연구를 소개하였다.<sup>2)</sup>

지난 30년이 경과하는 동안 독일과 미국의 종교개혁사가들에 의해서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거니와 현재까지의 연구의 성과를 볼 것 같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개혁 시대에 있어서 독일에 산재하고 있던 여러 도시들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1987년 미국 워싱턴시에서 미국역사학회의 연례대회가 모이는 것을 계기로 중앙유럽사학회(Central European History Society)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심포지엄을 가진바 있었다. 그 모임의 제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Reformation and Revolution: From the Sacral Community to the Common Man>. 이 심포지엄에 참석한 종교개혁사 연구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발표자는 세 사람이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의 역사학 교수 Po-Chia Hsia 와 오레곤 대학의 교수 Thomas A. Brady 그리고 스위스 베른대학교의 Peter Blickle 교수였다.<sup>3)</sup> 이 세 사람은 각각 시각

2) 홍치모, "종교개혁과 독일의 제국도시", 역사학보, 제94, 95합집, (1982. 9), pp. 351-372.

3) R. Po-Chia Hsia, "The Myth of the Commune: Recent Historiography on City and Reformation in Germany"; Peter Blickle, "Communal

을 달리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도시 공동체와 종교개혁에 관한 연구성과를 사학사적 차원의 회고와 아울러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1990년에 간행된 종교개혁사 기요(紀要)(Archive for Reformation History)에서는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Alister McGrath 교수는 “칭의(Justification)와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sup>4)</sup>

필자는 이들이 발표한 논문을 분석적으로 소개하면서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검토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필자 나름대로 전망해 보고자 한다.

## 1.

주지하다시피 「종교개혁과 도시」가 종교개혁사 연구의 새로운 과제가 된 것은 Moeller 교수가 1962년 「제국도시와 종교개혁」이라는 저서를 간행함으로써 비롯되었다. Moeller 교수가

---

Reformation and Peasant Piety: The Peasant Reformation and its last Medieval Origins”; Thomas A. Brady, “From the Sacral Community to the Common Man: Reflections on German Reformation Studies.” 위의 세 논문은 미국 Emory대학에서 간행되는 계간지 *Central European History*, vol. 20, no. 3, 4. (1987)에 게재되어 있다.

4) Alister E. McGrath, “Justification and the Reformation: The Significance of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to Sixteenth Century Urban Communities” *Archive for Reformation History*, vol. 81(1990), pp. 5-19.

이 문제를 새삼스럽게 부상시킨 것은 역사연구에 있어서 사회사적 연구가 지배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역사연구에 사회사적 연구방법을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Moeller 교수도 인정하기를 이 문제를 다룬 최초의 역사는 Alfred Schultze 교수이며 1918년에 간행한 「도시 공동체와 종교개혁」이라는 저서에서 암시와 자극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다음은 Schultze 이후 40년이 경과한 1958년에 Heinrich Schmidt의 저서에서 영향을 받은 것을 Moeller 교수 스스로가 고백한 바 있다.<sup>5)</sup>

이와 같이 Moeller 교수가 앞의 두 사람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독일 동북부의 시골 대학 출신의 한 수도사의 신앙적 자각과 아울러 성서연구의 결과로서 얻어진 새로운 교리가 어떻게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전혀 다른 남부독일의 여러 도시들에 침투하였으며 그것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이유와 경로를 거쳐서 각 도시들에 수용되었는가를 분석 검토한 것이 바로 「제국도시와 종교개혁」이었다.

Moeller교수의 연구를 시발점으로 하여 독일의 소장 역사가들은 남부독일에 있는 여러 도시를 비롯하여 스위스에 있는 큰 도시들까지 포함시켜 본격적인 개별연구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1967년에는 영어를 구사하고 있는 외부의 학자로서는 최초로 Miriam Usher Chrisman이 『Strasbourg and the Reform』이라는 저서를 간행하였다. 사실에 있어서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도시라고

5) Alfred Schultze, *Stadtgemeinde und Reformation* (1918); Heinrich Schmidt, *Die Deutschen Städtchroniken als Spiegel des Bürgerlichen Selbstverständnisses im Spätmittelalter* (1958).

할 수 있는 Strasbourg시는 국제적으로 종교개혁과 도시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연구의 초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의 종교개혁사가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1962년 Moeller 교수의 저서가 간행되었을 때, 분명히 그것은 하나의 획기적인 연구성과였음으로 당분간 Moeller교수의 연구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역사가는 별로 없었으나, 시일이 경과하면서 Moeller 교수의 연구에 대해서 부분적 내지 전면적 비판을 가하는 역사가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미국의 Thomas A. Brady 교수는 자신의 연구에서 Moeller교수의 “기독교 공동체”(Corpus Christianum) 개념을 분석적으로 비판하였고 캐나다의 Lorra Jane Abray 교수는 “장기지속”(Longue durée)적 차원에서, 즉 1500년부터 1598년까지의 Strasbourg시를 연구함으로써 Moeller 교수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프랑스의 Francis Rapp 교수는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Strausbourg시의 60년간의 역사를 세밀하게 검토하였고, 서부독일의 Erdmann Weyrauch 교수는 잠시나마 개혁운동이 진행되다가 도중에 실패하였던 Stasbourg시를 연구하였다.<sup>6)</sup> 그리고 1984년 Bern시에서 개최

6) Thomas A. Brady, Jr., *Rulling Class, Regime and Reformation at Strasbourg 1520-1555* (Leiden, 1978); Lorna Jane Abray, *The People's Reformation: Magistrates, Clergy, and Commons in Strasbourg, 1500-1555* (Ithaca, N.Y., 1985); Francis Rapp, *Réformes et Réformation à Strasbourg: Église et Société dans le diocèse de Strasbourg, 1450-1525* (Paris, 1975); Erdman Weyrauch, *Konfessionelle Kreise und Sozial Stabilität: Das Interim in Strasbourg 1548-1562* (Stuttgart, 1978).

되었던 국제심포지엄에서는 <Zwingly와 Europe>이라는 제목으로 회의를 진행시키는 가운데서 비록 제목은 달리 하였을 지라도 종교개혁과 도시의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의 추세에 힘입어 남부 독일에 산재하고 있는 각 도시들마다 제각기 지방도시사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지방도시출신의 현역 역사가들을 배출시키기에 이르렀다.

Hans-Christoph Rublach은 Constance시와 Nördlingen시를 Philip Broadhead는 Augusburg시를 그리고 Theodor V. Brodek은 Ulm시의 역사를 각각 연구하였다.<sup>7)</sup> 이와 같이 종교개혁시대의 도시사 연구의 현황에 관해서 Kaspan Von Greyerz는 1977년부터 1984년까지 200종류가 넘는 논문과 저서가 간행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거니와 현재로서는 250편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sup>8)</sup> 이와 같이 다량으로 쏟아져 나온 논문들과 저서의 제목 및 내용을 분류해 볼 것 같으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도시 자체의 정치사일 것이고, 둘째로는 도시와 제국 또는 각 도시 사이의 관계를 취급한 도시외교사, 셋째는 각 도시에서 개최되었던 종교회의의

7) Hans-Christoph Rublack, *Eine Bürgerliche Reformation: Nördlingen* (Gütersloh, 1982); Philip Broadhead, "Politics and Expediency in the Augusburg Reformation", in *Reformation Principle: Essays in Honour of A. G. Dickens* (London, 1980), pp. 53-70; Theodor V. Brodek, *Society and Politics of Late Medieval Ulm, 1250-1550*. 1092년 미국 Columbia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8) R. Po-Chia Hsia, *The Myth of the Commune*: p. 205 이하 R. Po-Chia Hsia로 생략함, "Stadt und Reformation: Stand und Aufgaben der Forschung," *Archive for Reformation History* 76 (1985): p. 6-63.

동기와 성격 및 토의 내용이 도시 자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회의사(會議史)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Münster대학과 Tübingen대학이 각각 연구팀을 조직하여 중세말기의 도시의 제도와 기능 그리고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들이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기대를 걸어볼 만할 것이다.

## 2.

지금까지 유럽에 있어서 종교개혁과 도시와의 관계를 연구한 것을 대략 언급하였거니와 그 성과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평가를 소개하기로 하자. 우선 Po-Chia Hsia 교수의 기본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요약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Moeller 교수가 중세 말 독일의 도시 공동체를 기독교 공동체로 보고 있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만약 중세 말 도시가 기독교 공동체였다면 중세 말에서 종교개혁시대까지 빈번하게 발생했던 도시 내의 계급적 대립과 갈등 그리고 투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Moeller 교수 자신의 명쾌한 연구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Po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둘째는 종교개혁 당시 서남독일에 산재하고 있던 도시들에 대한 일반적으로 동북부 지방에 있던 도시들에 비해서 종교개혁운동에 반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도시의 자치주의(Communalism)는

종교개혁운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반항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다는 점 등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독립성이 강한 도시들이 어떤 동기와 목적에서 루터의 종교개혁과 그 사상을 수용하였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Po 교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Po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북부 독일에 산재하고 있던 도시 안에서 발생한 종교개혁운동에 대해서 「한사 종교개혁」(The Hansa Reformation)이라고 제목을 부치면서 Moeller 교수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우선 Moeller 교수 자신의 말을 들어 보기로 하자 그는 말하기를 “북부독일에 산재하고 있던 여러 도시들은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남부에 있는 여러 도시들보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훨씬 준비가 덜 되어 있었다.”<sup>9)</sup>라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Moeller의 이와 같은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Po 교수의 반대적 견해이다. 즉 한사동맹에 가입한 도시들의 역사를 고찰 해 볼 것 같으면 14세기에서 15세기에 이르는 동안 도시 길드(guild)의 도시 귀족체제에 대한 반란이 잦았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시민정신이 활기있게 약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귀족으로 구성된 시의회와 시민 공동체 사이의 대립과 항쟁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도시행정부가 시민 공동체보다 언제나 우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에 대하여 시민들

9) Bernd Moeller, *Imperial Cities and the Reformation* (Fortress press, 1972). p. 98.



이 그들의 권리를 옹호했던 것은 종교개혁운동이 북부에서나 남부에서 똑같이 싱싱한 활력소를 불어넣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정신이 남북을 막론하고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제공하였으므로 Moeller 교수가 주장한 것과 같이 북부 독일의 도시들은 보수적이었던 반면에, 남부 독일의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북부도시들이 루터의 개혁사상을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하였다.<sup>10)</sup>

Po 교수에 의할 것 같으면 Moeller의 기독교 공동체(a Corpus Christianum)로서의 시민공동체의 개념은 마르크스-베버적인 견해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도전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과연 16세기 독일의 여러 도시들이 도시 자체 내에서 협동적 단결과 자치적 자유를 절정의 선상에서 구가하고 있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중세말의 독일의 도시들은 봉건사회에 있어서 정치적 내지 사회적 모습을 보여주는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있어서 농촌이 도시보다 지역성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세 말기의 도시 공동체라는 것은 역시 봉건적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를 장악하고 있던 지배계층 또한 봉건적 범주 안에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한 예로서 Po 교수는 Thomas Brady의 연구를 인용하여 도시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던 계층간의 대립과 투쟁을

---

10) R. Po-Chia Haia. *The Myth of the Commune*, pp. 206-209.

보아 Moeller교수가 지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도시공동체의 일치성과 결집적 행동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Mansfred Bensing과 같은 맑스주의 사가는 제국도시의 하나였던 Mühlhausen시를 분석한 결과 자율적인 도시공동체로 볼 수 없고 다만 계급투쟁이 소용돌이치는 장소로서 계급적 분열의 표본으로만 보고 있다.<sup>11)</sup> 그리고 최근에 Nürnberg시를 연구한 Günther Vogler는 Nürnberg시의 상황을 진단한 결과 도시공동체 안에 형성되어 있던 여러 세력들은 원심(遠心) 과 구심(求心) 사이에서 서로가 변증법적 긴장 속에서 대치하고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sup>12)</sup>

끝으로 R. Po-Chia Hsia 교수는 Peter Blickle 교수의 연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소위 16세기라는 시대는 독일에 있어서는 아직도 군주들의 활동시대로서 정치적 행동력은 여전히 그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대중들의 항의와 반란 그리고 혁명을 통해서 도시나 촌락을 막론하고 적어도 남부 독일과 스위스 연방에서는 종교개혁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Moeller 교수가 말하고 있는 공동체(Gemeinde)라는 말은 보다 넓은 사회적 차원에서 새롭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 공동체는 언제나 통치권(Obrigkeit)과 주권(Herrschaft)에 대해서 저항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말은 도시 공동체(Stadtgemeinde)와 촌락 공동체(Dorfgemeinde) 그리고 교회 공동체(Kirchengemeinde)를 모

11) Mansfred Bensing, *Thomas Müntzer und Thüringer Aufstand 1525* (Berlin, 1966)

12) Günther Vogler, *Nürnberg 1524/25* (1982)

두 포함시켜서 복합개념으로 파악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민중종교개혁(Volksreformation)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확대시켜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일단 협소한 계급투쟁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서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개혁운동의 다양성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정치사회적 내지 신학적 분석을 동시에 통합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룩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3)</sup>

### 3.

지난 30년간 연구를 거듭해 온 도시종교개혁에 대해서 R. Po-Chia Hsia 교수는 다음 일곱개 항목으로 연구의 성과와 앞으로 더 규명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공동체 종교개혁(Gemeindereformation) 또는 농민 종교개혁은 양쪽 모두 그 문제의 효용성에 있어서 시간적 내지 지역적인 차이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도시공동체 운동은 그 중심이 서남 독일과 스위스 지역이었고 그 운동이 절정에 도달했던 시기는 1525년으로서 대중들, 즉 농민을 포함하는 도시의 일반 대중들의 참여로 운동이 최고에 도달했다는 것이

---

13) Peter Blickle, *Die Revolution Von 1525* (1975); idm, *Landschaften im Alten Reich: Die Staatliche Funktion des gemeinen Mannes in Oberdeutschland* (Münich, 1973); idm, *Gemeindereformation: Die Menschen des 16 Jahrhunderts auf dem weg zum Heil* (1985).

다. 이때부터 농민 종교개혁과 도시 종교개혁이 따로 분리하여 진행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Peter Blickle 교수의 연구는 반(反)도시주의적이어서 농촌에서의 대중들의 활동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도시의 직인들의 생활과 활동을 도외시 할 경우 도시와 농촌의 균형은 깨어지게 된다. 도시나 농촌에서 살고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민중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을 치우쳐서 연구하게 될 때 균형을 상실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

둘째, 북부 독일과 남부 독일의 도시의 성격과 구조는 서로 달랐으므로 역사가들은 세심한 주의력을 가지고 분석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Moeller 교수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Corpus Christianum)로서 도시를 일반화시킬 수도 없거니와 동시에 막연하게 도시 종교개혁(Communal reformation)이라는 말로 규정지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각 도시마다 가지고 있던 도시법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도시가 처해있던 특수한 입장과 이해 관계에 따라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종교개혁사가들은 특히 사회적 지형에 유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가 가지고 있던 부와 직종에 따라 달라지고 있던 인구분포 그리고 조합의 다양성에 따라 나타나는 도시의 개체성은 종교개혁운동의 수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넷째, 도시와 반동-종교개혁의 문제: 종교개혁사가들은 종교개혁을 수용하지 않고 그냥 가톨릭신앙으로 남아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혁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가 다시 로마교회로 돌아갔던 도시들에 대한 연구가 소홀하다는 것이다. 도시군주가 동시에 교회의 주교(bishop)를 겸하고 있던 도시라고 하더라도 그 도시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의 경건의식(敬虔意識)은 도시행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으로 도시민적 이데올로기 형성에 적지 않은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소홀히 취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다섯째, 제2의 종교개혁으로서의 칼빈주의가 도시 종교개혁에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그 영향은 어떠했었는가. 일반적으로 칼빈주의를 표방했던 교회는 대회(Synod), 또는 총회(General Assembly)를 조직하여 도시행정에 이모저모로 영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들의 활동에 따라 나타난 결과를 무시할 수 없다. 최근 Heinz Schilling이 조사한 Lemgo시에 대한 연구는 주목을 끌고 있다.

여섯째, 도시와 신앙고백(Confessionalism)의 문제: Augusburg 평화회의와 Westphalia평화조약의 체결 결과로서 제국 내의 많은 도시들은 하나만이 아니고 둘 혹은 셋까지도 각기 상이한 신앙공동체를 인정하거나 또는 묵인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를테면 한 도시 안에 로마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것과는 반대의 입장에 있는 루터파 교회와 칼빈파 교회도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고찰한 사람들은 주로 젊은 소장학자들이었다. Peter Thaddäus Lang은 Ulum시의 소수 가톨릭교도들의 움직임을 연구하였고 Paul Warmbrum은 Augusburg 제국도시에 있는 가톨릭 교도들과 아울러 프로테스탄트 교도들의 움직임도 고찰하였다. 그리

고 Peter Zschunke는 16세기 중엽에서 18세기 초엽까지 Oppenheim시에 있었던 로마교회 신도들과 칼빈주의자들 그리고 기타 개신교도들의 활동에 관해서 분석적으로 고찰하였다.<sup>14)</sup>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중세 말에 처해 있던 독일의 여러 도시들의 구조와 신앙집단 상호간의 긴장과 투쟁을 통해서 도시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일곱째, 성(性)의 분석(Gender Analysis): 최근에 발표된 두 사람의 논문은 또 다른 문제를 환기시켰다. 즉 Merry Wiesner와 Lyndal Roper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던 “보통사람”(Common Man)과 “시민공동체”(Civic Commune)라는 말의 개념 속에는 “여자”와 “여성”은 제거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종교개혁사 연구에 있어서 여성을 포함시킨 통합적 가정역사와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연구해야 할 것을 제창하였다.<sup>15)</sup>

---

14) Peter Thaddäus Lang, *Die Ulmer Katholiken im Zeitalter der Glaubenskämpfe: Lebensbedingungen einer Konfessionellen Minderheit* (Frankfurt un Bern, 1977); Paul Warmbrunn, *Zwei Konfessionen in einer Stadt: Die Zusammenleben Von Katholiken und Protestant in den paritätischen Reichsstädten Augsburg, Biberach, Rabensburg und Dinkelsbühl von 1548-1648* (Wiesbaden, 1983); Peter Zschunke, *Konfession und Alltag in Oppenheim: Beiträge Zew Geschichte von Bevölkerung und Gesellschaft einer Gemischtkonfessionellen Kleinstadt in der Fröhen Neuzeit* (Wiesbaden, 1984).

15) Lyndal Roper, “‘The Common man’, ‘The Common good’, ‘Common Women’: Reflections on Gender and Meaning in the Reformation German Commune”, *Social History* (May, 1987); Merry E. Wiesner, “Beyond Woman and the Family: Towards a Gender Analysis of the

이상 일곱개 항목을 지적한 Po-Chia Hsia 교수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공동체로서의 도시는 16세기의 이데올로기로서 존재하였다. 도시 공동체는 살아있는 여러가지 헌정적 형태로서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도시는 그 자체가 도시인으로 하여금 공동체에 충성할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 넣어주었고 전통적 정치문화를 후대에 인식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도시민의 자유와 전통들을 지켜주는 방패막이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최근 도시와 종교개혁에 관한 독일사에 있어서 반권위주의적 전통과 대중운동의 모체로서 인식되었다.

16세기의 도시는 과거의 대중성과 현재의 민주성을 연결시켜주는 가교와도 같은 존재이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했던 것과 같이 구제도에 독일인들은 모두가 권위주의적인 통치자들의 한갓 신복(臣服)들만은 아니었다. 그들이야말로 그들 자신이 스스로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역사의 주체들이었다는 것이다.

#### 4.

지금까지 종교개혁과 도시 공동체와의 관계를 연구사적 차원에서 고찰하였거니와 종교개혁과 농촌 내지 농민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였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스위스의 Peter Blickle

교수는 「Peasant Reformation」이라는 제목을 걸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Peter Blickle 교수는 R. Po-chia Hsia 교수와 마찬가지로 Bernd Moeller 교수의 저서에 나타난 그의 견해를 비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sup>16)</sup> 우선 Bernd Moeller 교수가 종교개혁과 농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그는 “종교개혁운동과 관련시켜서 생각할 때 농민들을 염두에 둔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들은 항구적으로 달혀진 상태하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농민들은 대다수가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귀머거리들이었다. 여하튼 농민들은 실제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17)</sup>

이와 같이 Bernd Moeller 교수는 종교개혁과 농민들 사이에는 원초적으로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단정하였다. 그렇다면 종교개혁과 농민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디에다 규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Peter Blickle 교수는 다음 세 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농촌사회에 종교개혁운동이 있었는가? 과연 농촌사회에 개혁 운동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한 가지 조건이란 본래적 질

16) Peter Blickle, “Communal Reformation and Peasant Piety: The Peasant Reformation and its Late Medieval Origins”, *Central European History*, vol. 20. no. 3/4(1987), pp. 216-228.

17) Bernd Moeller, *Deutschland im Zeitalter der Reformation, Deutsche Geschichte, 2: Frühe Neuzeit* (Göttingen, 1985), pp. 72-73.



문에 답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한 가지 조건이란 농민의 자치화(Communalization)가 진행되고 있었는가, 아니면 이미 자치화가 이루어져 있었는지 하는 그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둘째 조건은 농촌사회에 기독교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가고 있었는지 그 여부에 관한 문제가 또한 규명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첫번째 문제에 관해서부터 Peter Blickle 교수의 견해를 들어보기로 하자.

Peter 교수는 1522년부터 스위스의 Zürich지방에서 농민 종교개혁운동이 시작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개혁가들은 로마교회에서 거행하는 미사(Mass) 대신에 개혁설교(reformong sermons)를 시작하는 것으로 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1525년 경에는 남부독일 일대가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지역으로 바뀌었다. 대충 헤아려 볼 때 당시 신성로마제국 안에 살고 있던 전 농민의 1/3이 개혁운동을 지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sup>18)</sup>

종교개혁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개신교로 전향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교리에 대한 열정은 일반 대중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하였다고 Peter Blickle 교수는 주장하고 있다.

종교개혁운동은 1525년에 발생했던 농민전쟁으로 최고절정

---

18) Peter Blickle, *Gemeindereformation: Die Menschen des 16 Jahrhunderts auf dem weg zum Heil* (Münich, 1985), pp. 24-76; Peter Bierbrauer, "Die Reformation in den Schaffhauser Gemeinden Hallau und Thayngen", in Peter Blickle, ed., *Zugänge Zur Bäuerlichen Reformation, Bauer und Reformation* (Zürich, 1987), p. 38.

에 달하였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종교개혁사의 한 전환점을 찍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농민반란을 저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함으로써 독일제국과 스위스연방에서 종교개혁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농민들은 그들의 역할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19)</sup> 그러므로 종교개혁운동에 있어서 농민전쟁의 실패로 대중은 빠져버리게 되었고 대신 정부와 도시를 장악하고 있던 귀족들에 의해서 개혁운동의 향방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농민들이 얼마만큼 종교개혁운동의 정신과 교리를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분석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첫째, 농민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던 것을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첫째는 신학적인 문제요, 둘째는 교회의 조직과 행정의 문제이다. 그러면 종교개혁에 대한 농민들의 신학적 이해는 어떠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은 그들 스스로가 분명한 의사와 태도를 표시하였다.

- ① 농민들은 복음의 메시지의 순결성을 요구했고
- ② 성직자의 선출과 초빙은 전 공동체(Gemeinde)에 의해서 결정할 것
- ③ 교리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도 공동체의 권위에 의해서 논의되고 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교회조직과 행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하였다.

---

19) Peter Blickle, op. cit., *Gemeindereformation*, p. 50 ff.

- ① 교구목사는 반드시 교구 안에서 거주해야 한다.
- ② 교회는 누구가 시무하든 간에 교회 상호간에는 평등을 유지해야 한다.
- ③ 교회법을 폐지하거나 최소한도로 제한시켜야 한다.<sup>20)</sup>

농민들이 제시한 각 3개 항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들의 강조점은 “복음의 순수성”(Gospel Purity)과 동시에 “공동체의 선”(Common good)과 “형제의 사랑”(Brotherly love)을 강조하였다. 이것이 곧 농민들의 신앙이요 이상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곧 “사회의 기독교화”라는 넓은 콘텍스트 안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들의 정치적 이상은 기독교 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sup>21)</sup> 농민들이 기독교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을 제시한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농민들이 공동체(Gemeinde)의 권리로서 성직자들의 자유로운 선출과 초빙문제였다. 이것은 농민들이 제시한 “12개 조항”(Zwölf Artikel)의 첫번째에 명시되어 있다. 즉 농민들은 목사 선택의 권한을 교구민 전체의 의지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독일의 농민전쟁은 단순한 농민반란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민들이 성직자의 선택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복음의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당시 농민들이 루터의 개혁운동을 전적으로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루터의 만인제사장직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

20) Peter Blickle, op. cit., *Communal Reformation and Peasant Piety*, p. 218.

21) Peter Blickle, op. cit., *Gemeindereformation*, pp. 68-71.

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Peter Blicke 교수는 이 점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회 안의 비(非)성직화(dehierachilization)의 요구는 농촌의 자치화(communalization)와 더불어 교회에 납부해야 할 10분의 1세와 아울러 각종 부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로 제기하게 되었다”고 하였다.<sup>22)</sup> 여하튼 당시에 있어서 농민들이 그와 같은 요구를 제시하였다는 것은 중세 말부터 농촌에서 서서히 농민들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농민들이 루터의 개혁사상의 자극을 받아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보다 구체화 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세말 농촌사회의 자치화”(Communalization of Rural Society in the Late Middle Ages)는 곧 농민종교개혁의 선행조건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Peter Blicke 교수의 이론이다. Peter Blicke교수는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음 몇가지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마르바하(Marbach)교구에 속해 있던 발가하(Balgach) 공동체는 1424년 새로 지은 건물에서 미사(Mass)를 거행하기 위해서 매주 한번씩 세속승(世俗僧)을 초빙하곤 하였다. 그의 집전을 보답하기 위해서 교회에 속해 있는 토지를 개간하여 포도밭을 경영하였다. 그리고 1513년 발가하마을 농민들은 그들이 손수 세운 교회 건물에서 자유롭게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본당 교회에 요구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 마을의 농민들은 한 세기를 경과하는 동안 4번이나 그들 스스로가 마을

22) Peter Blicke, op. cit., *Communal Reformation and Peasant Piety*, p. 219.

의 자치적 권리를 획득함으로써 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신장시켜 나갔다.

다음 스위스의 동부 지역에 있는 Thurgau마을에서는 종교개혁 이전에 교구성직자들은 일대일로 대등한 위치와 권리를 가지고 교회를 돌보았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료(史料)에 의할 것 같으면 1520년 Thurgau의 162명의 성직자들 중에서 20퍼센트가 마을의 농민자치단체에서 선출되어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팔라틴네이트(Palatinate) 영내(領內)에 있는 Germersheim과 Gutenberg지방에서는 32개 교구 중에서 3/4은 모(母)교회로부터 떠난 자(子)교회(filial chaples)였고, 46교구 중에서 17개 교구는 농촌의 자치협동체에서 헌납하는 기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다.<sup>23)</sup> 끝으로 Baden과 팔라틴네이트(Palatinate) 영내(領內)에 있는 250개 마을 중에서 175개의 마을은 교구교회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75개 마을 중에서 56개 마을은 그들 스스로가 세운 마을 교회(Dorf Chapel)를 가지고 있었다. 이 중에서 19개 마을 교회는 교구교회와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본당 교회로부터 아무런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Peter 교수는 말하기를 농촌의 자치공동체(Gemeinde)가 모교회의 성직자들이나 보호자(지방유지 혹은 귀족)들의 권위로부터 그들 스스로가 벗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sup>24)</sup>

23) Peter Blickle, *Ibid.*, p. 224.

24) Peter Blickle, *Ibid.*, p. 225; Rosi Fuhrman, "Kirch im Dorf",

지금까지 Peter Blickle 교수의 논지를 간략하게 소개하였거니와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할 것 같으면, 종교개혁은 도시에 서와 마찬가지로 농촌에서도 그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과 아울러 “농촌의 자치적 협동체화”(Dorf Communalization)가 이루어져 감에 따라 그것이 “교회의 자치화”(Communalization of the Church)에로 발전하여 가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농민전쟁으로 인하여 이 운동은 좌절되고 말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상기시키고 있다.<sup>25)</sup>

## 5.

1960년 이래 현재까지 주로 독일의 종교개혁사가들과 일부 미국의 역사가들의 성과를 Po-Chia Hsia 교수와 Peter Blickle 교수의 논문을 통해서 대충 연구의 줄거리와 개별적인 연구의 결과를 소개하였다. 여기에 덧붙여서 미국 Oregon대학교의 Thomas A. Brady, JR. 교수는 위의 두 사람의 연구까지 포함시켜서 보다 포괄적인 연구평가를 내리고 있다.<sup>26)</sup>

---

*Kommunal Initiativen zur Organisation der Seelsorge von der Reformation, in Blickle, ed., Zugänge Zur Bäuerlichen Reformation, Baur und Reformation I (Zürich, 1987), p. 185.*

25) Peter Blickle, *Communal Reformation and Peasant Piety*, p. 226.

26) Thomas Brady, JR., “From the Sacral Community to the Common Man: Reflections on German Reformation Studies,” *Central European History*, vol. 20, no. 3/4(1987), pp. 229-245.

일반적으로 종교개혁 연구에 있어서 지난 500년간의 연구 경향을 볼 것 같으면 각 시대마다 연구의 대상과 내용을 달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을 크게 분류해 볼 것 같으면 계몽주의 시대 이후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적 견지에서 연구한 것을 비롯하여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유물론적 계급투쟁사적 연구가 있었고, 사회사 내지 사회경제사 연구가 활발해지자 도식적인 맑스주의사적 연구방법을 지향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종교개혁과 도시”에 관한 주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연구제목을 정하기까지, 즉 1945년 이후 1965년 경까지만 하더라도 동부독일의 역사가들은 Thomas Müntzer를 높이 쳐들고 있었다. 그것은 1917년 루터의 개혁운동 400주년을 맞이하여 독일의 정통적 역사가들과 교회사가들이 마치 루터를 높이 쳐들어 소위 루터 르네상스(Luther Renaissance)의 붐을 일으켰던 것과 같은 것이었다.<sup>27)</sup> 그리하여 맑스주의 사가들은 Müntzer를 ‘한 영원한 공산주의자’로 추앙하였다. 그들은 역사의 재정리와 재구성을 시도함으로써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Max Steinmetz였다. 그와 그 후계자들은 독일의 종교개혁을 유럽에 있어서 초기 부르조아혁명으로 간주하였다. 이들에 의해서 부르조아계급이 봉건사회의 붕괴와 초기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해석이 종전까지 감행되었던 맑스주의자들의 도식적 해석보다 느슨해지게 되었다. 그들은 종전과 같은 도식적 해석을 피

27) Déckens and Tonkin, *The Reformation in Historical Thought*, (Harvard University Press, 198), pp. 256-262.

하느라고 애를 썼지만 그 대신 애매모호한 해석을 하게 되었다.<sup>28)</sup> 둘째로 이들은 독일의 종교개혁을 전 유럽사의 테두리 안에서 재구성함으로써 유럽에서 나중에 발생한 혁명과 연결시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종교개혁을 혁명으로 간주함으로써 모든 혁명의 원형으로 묘사하려고 하였다. 셋째로 이들 수정주의적 맑스주의자들은 부르조아 역사가들과 맑스주의 역사가들이 논쟁을 지속하고 있는 동안에 루터에 대한 정통적 해석과 맑스주의자들의 해석을 절충 내지 수정을 가함으로써 루터를 신학사상가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혁명을 유발케 한 주인공으로 묘사하였다. 그 결과 1983년 루터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는 선물로 그의 전기가 간행되었다.<sup>29)</sup>

Brady 교수는 수정 맑스주의자들의 종교개혁사연구에 관해서 언급한 다음 최근 종교개혁사연구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종교개혁의 사회사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Bernd Moeller 교수 이외에 이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역사가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스위스의 Peter Blickle 교수와 미국의 Po-Chia Hsia 교수를 지적하고 있다.

28) Max Steinmetz, *Die Fröhbürgerliche Revolution in Deutschland (1476-1535)*; Thesen, in Gerhard Brendler, ed., *Die Fröhbürgerliche Revolution in Deutschland: Referate und Diskussion zum Thema Probleme der Fröhbürgerliche Revolution in Germany 1476-1535* (Berlin, 1961), 7-16; R.W. Scribner and Gerhand Benecke, ed., *The German Peasant War of 1525- New Viewpoint* (London, 1979), pp. 9-19.

29) Gerhard Brendler, *Martin Luther: Theology und Revolution* (Berlin, 1983)



이 세 사람과 거의 같은 처지에서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Brady 교수 자신도 포함된다.

Po-Chia Hsia 교수와 Blickle 교수의 연구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하였으므로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여기서는 Brady 교수가 Po 교수와 Blickle 교수의 연구의 초점이 각각 어디에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극히 간단하게 그 요점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Brady 교수는 우선 Po 교수의 연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Po 교수는 맑스·레닌주의 학파의 유산을 약간 계승하면서 그들이 짜놓은 틀 속에 자본주의대 봉건주의라는 문제를 설정한 것과 같이, 그 자신은 그와 같은 틀 속에다 새로이 자치주의 대 권위주의적 국가라는 개념을 설정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Po 교수가 말하고 있는 자치주의(Communalism)는 독일 역사에 있어서 반봉건·인민주의·반권위주의적 유산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권위주의적 로마 가톨릭시즘과 대항하여 싸운 Münster시의 반란에 관한 연구 결과를 지적하고 있다.<sup>30)</sup> 북부 독일에 있는 Münster시에서 발생했던 반란의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또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Münster시에서 발생한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북부 독일에 산재하고 있던 여러 도시들의 동태가 어떠했는지 그 역사적 실상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Heinz Schilling 교수가 자신의 저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네덜란드로부터의 영

30) Po-Chia Hsia, *Society and Religion in Münster, 1535-1618* (New Haven, 1984).

향을 받고 Münster시에서 반란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sup>31)</sup> 그러므로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할 과제는 북부독일에 산재하고 있던 여러 도시들과 남부 독일에 있던 여러 도시들 상호간의 구조와 성격 및 제국과의 관계 등 다방면으로 비교하여 고찰 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Brady 교수는 피력하였다. 다음 Blickle 교수의 연구에 대한 Brady 교수의 평을 듣기로 하자.

Brady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85년 Blickle 교수는 『공동체 종교개혁(Gemeindereformation)』이라는 제목으로 저서를 발표한 후 '공동체 종교개혁'이라는 용어는 Blickle 교수의 독특한 학문적 술어가 되었다.<sup>32)</sup> 한 마디로 말해서 Blickle 교수는 공동체로서의 농촌의 종교개혁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오랜 세월동안 종교개혁에 있어서 농민들의 역할이 실제로 무엇이었던가를 구체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연구하지 못한 채 방치해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Blickle 교수는 그의 논문이나 저서에서 신랄하게 꼬집고 있다. 독일의 역사가들이 그와 같이 소홀하게 다루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랑케(Ranke) 이후

31) Heinz Schilling, "Die Deutsche Cemeindereformation; Ein Oberdeutsch-Zwinglianisches Ereignis zur der 'reformatorischen wende' des Jahres 1525?," *Zeitschrift Für Historische Forschung* 14 (1987), pp. 325-332; R.Po-Chia Hsia, *Society and Religion in Münster, 1535-1618* (New Haven, 1984).

32) Peter Blickle, *Die Gemeindereformation: Die Menschen des 16Jahrhunderts auf dem weg zum Heil* (Munich, 1985).

역사주의자들과 심지어 Troeltsch까지도 농민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Brady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래의 정통사가들에 있어서 농민전쟁은 단지 “하나의 자연적 사건”(ein Naturrerignis)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sup>33)</sup> Blickle 교수는 도시 공동체에서 보다는 농촌 공동체 안에서 참다운 평민(Common Man)이 소유하는 교회(Eigenkirche)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lickle 교수는 Moeller 교수가 도시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자치적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넘어서 농촌의 촌락 공동체의 교회에서 비로소 관원의 냄새가 훨씬 덜 나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이 참다운 “공동체 교회”(Gemeinderkirche)의 원형이요 이상형이라고 하였다. 농촌의 자치주의와 근대 민주주의와의 가교(架橋)가 가능해진 것도 결국 종교개혁운동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무나 협소한 중세 독일제국 안에서 발생한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된 소위 도시 종교개혁(Urban Reformation)이라는 과제는 전유럽이라는 차원에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킴으로써 보다 높은 차원에서 그리고 보다 넓은 시야에서 개혁운동의 원인과 전개과정 그리고 지역마다 드러나는 차이성을 16세기라는 Context 안에서 재조명하자는 것이 Blickle 교수의 제창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Brady 교수는 Blickle 교수가 종교개혁의 주체세력은 귀족들

33) Kaspar von Greyerz ed., *Religion, Politics and Social Protest: Three Studies on Early Modern Germany, Publication of the German Historical Institute London* (London, 1984), pp. 1-23.

이러기 보다는 도시와 농촌에 산재하여 살고 있던 평민 (Comman Man)들이었다는 것을 새로 부각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평하였다.<sup>34)</sup> 이상 기술한 것이 Brady 교수가 R. Po-Chia Hsia 교수와 Blickle 교수의 연구에 대해서 각각 평한 내용이다.

종교개혁시대는 중세 말에 해당하는 격변기요 동시에 근대 사회로 이행하고 있던 시대였으니만큼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기란 매우 복잡하다. 시기와 지역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고 있었던 16세기 독일의 도시와 농촌의 실상을 파악하기란 용이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역사적 Context 안에서 개체로서의 '도시'가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을 수용하였을 때와 거부하였을 때 똑같이 그 이유를 묻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라고 하더라도 귀족이 통치하고 있던 도시가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도시에서는 *Zunft*들이 주동이 되어 다스리고 있던 도시들도 있었다. 따라서 도시의 유형과 성격의 차이등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비교사적 (도시 상호간) 연구에 입각한 종교개혁사연구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의 성과를 집대성하여 어떤 결론을 인출해 내려고 할 것 같으면 좀더 인내력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34) Peter Blickle, "Communalism, Parliamentaryism, Republicanism" 이 는 문은 Brady 교수가 1986년 영어로 번역한 바 있다. David Blackbourn and Geoff Eley, *The Peculiarities of German History: Bourgeois Society and Politics in 19th Century Germany* (Oxford, 1984), pp. 173-174.